

Press Release

2010. 12.16

세계 최고의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시그래프 아시아 2010” 개막

- 세계 최고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인터랙티브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행사인 시그래프 아시아 2010 개막
- 오세훈 서울시장, 미 시그래프 회장, 미 컴퓨터 협회장 등 관련 업계 VIP들이 참가해 시그래프 아시아 2010 축하 자리 가져
-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IT 무역 전시, 코스, 테크니컬 페이퍼, 테크니컬 스케치 및 포스터 등 업계 종사자 및 일반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선보여
-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루카스 필름 싱가포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마이크로 소프트 게임 스튜디오 등 전 세계 45개국 200여 개의 해외업체를 비롯 총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

(2010-12-16) 세계 최고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인터랙티브 기술의 향연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될 시그래프 아시아 2010이 16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막됐다.

이 날 진행된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미국 시그래프 회장 스캇 오웬(Scott Owen) 및 미국 컴퓨터 협회(ACM) 회장 앨랭 쉐네(Alain Chenais), 소피 레빌라드(Sophi Reveillard), 조지 드레타키스(George Drettakis), 마리-폴 카니(Marie-Paule Cani), 엘라 쉐퍼(Alla Sheffer) 등 세계적인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중에는 루카스 아트 싱가포르의 켄트 바이어(Kent Byers), 엔비디아(NVIDIA)의 사무엘 게티외(Samuel Gateau) 등과 같이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업계 별 선두 기업의 전문가들도 있었다.

개막식은 미국 시그래프 스캇 오웬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미국 컴퓨터 협회 앨랭 쉐나이즈 회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가 이어졌고, 시그래프 아시아 2010 고형석 의장이 개막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의 막이 올랐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시그래프 아시아 2010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개막식 초청 강사로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프랭크 스티븐슨(Frank Stephenson)은 “디자인 포 스피드(Design for Speed)”라는 주제로 개막 강연을 진행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시그래프 아시아 2010은 오는 18일(토)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IT 무역 전시 ▲코스 ▲테크니컬 페이퍼 ▲테크니컬 스케치 및 포스터 등의 프로그램과 초청 강연, 특별 세션, 전시자 기술 좌담 및 토론 등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그래픽스와 인터랙티브 기술을 경험할 수

Press Release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루카스 필름 싱가포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마이크로 소프트 게임 스튜디오, 엔비디아(NVIDIA) 등 전 세계 45개국, 20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해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게임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경우 수준 높은 총 115개 작품이 3일 동안 선보이는데, 상영 첫 날의 1,000석은 이미 3주 전에 매진되는 등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시그래프 아시아 2010 고흥석(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부 교수) 의장은 “시그래프 아시아는 아시아가 지난 세계적 수준의 창의력과 지적 잠재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라며 “이에 시그래프 아시아 2010은 아시아 컴퓨터 그래픽스와 인터랙티브 기술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반에 미치는 시그래프 아시아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2008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올 해로 3회째 개최되는 시그래프 아시아 2010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며, 이번 행사 유치로 서울시의 국제적 디지털 도시 이미지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그래프 아시아 2010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iggraph.org/asia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시그래프 아시아 2010
- 일자: 컨퍼런스 2010. 12.15~12.18 / 전시 2010.12.16~18
- 장소: 코엑스 컨벤션센터
- 주최: 미국 컴퓨터 협회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 후원: 서울시,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코리아그래프

<규모>

- 200 개 이상 업체 참가
- 전 세계 20,000 명 이상 인원 참가 예상 (외국 등록자 3000 여 명)
- 1,000 명의 고용 창출 및 약 409 억원 직간접 투자 효과 예상
- 2009 년, 100 여개 언론사 및 200 여 명의 취재진 참가

Press Release

<SIGGRAPH ASIA 2010>

제 3 회 ACM SIGGRAPH 아시아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인터랙티브 기술 컨퍼런스 및 전시가 제 1 회 2008 년 싱가포르, 제 2 회 2009 년 일본에 이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37 년 전통의 SIGGRAPH의 아시아 전시인 SIGGRAPH 아시아 2010 은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연구하며, 현안을 다루고,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내며, 예술, 컴퓨터 애니메이션, 과정, 교육, 새로운 첨단기술, 기술논문, 기술적 스케치, 포스터를 통해서 작업의 지적이고 창조적인 면을 자극한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스와 인터랙티브 기술 시장의 무역전시라는 특징도 보인다. ACM이 후원하는 SIGGRAPH 아시아 2010 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www.siggraph.org/asia2010)

<ACM>

미국의 컴퓨터 협회(ACM)가 SIGGRAPH와 SIGGRAPH 아시아 2010 을 후원, 주최한다. ACM은 세계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인터랙티브 기술을 주도하는 업계의 지식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컴퓨터 교육자, 연구자, 전문가들이 연합한 교육, 과학 학회이다. ACM은 강력한 리더십과 항상 최고수준의 프로모션으로 업계의 기준을 끌어올리며, 우수기술의 인정을 통해 업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ACM은 장기적인 학습, 경력개발, 전문적 네트워킹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전문가적 성장을 지원한다.

※ 자료 문의

드림커뮤니케이션즈	김하영 과장 010-8710-7393 / hyk@dreamcom.co.kr
	박지혜 AE 010-9306-1634 / jhpark@dreamcom.co.kr